

보성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 장박 텐트 stop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 철거제도 마련 “7월 8일 개장 앞두고 이용객 편의 위해 협조해주시길”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

시했으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성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는 7월 8일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 장비 점검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과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밑그림 완성

섬의 무한한 미래 가치 구현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여수시가 지난 22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섬박람회 밑그림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이어졌다. 그간 전체의원 간담회와 부행사장 주민 설명회, 종합기본계획 시민 설명회, 중간보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1년여 간의 산고 끝에 확정된 것. 종합기본계획은 '섬의 가치를 발견' 한다는 모토 아래 추진전략을 담았다. 또한, 섬박람회 주행사장 진모지구와 부행사장 개도, 금도, 여수세계섬박람회장은 물론 그 외의 여수 모든 섬이 박람회장이 되는 공간 개념을 제시했다. 핵심 콘텐츠가 될 주제는 '바다의 무한한 가치'와 '바다와 인류를 잇는 섬', '섬이 꿈꾸는

미래'의 세가지 스토리라인을 토대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를 '이머시브 미디어 터널(Immersive media tunnel)'로 충실히 구현한다. 관람객이 온 몸으로 직접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첨단 IT기술을 통해 현실적이고 선명한 디지털로 표현된 작품을 실감 콘텐츠 체험기회로 제공한다. UAM 탑승 행사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 내에 UAM을 탑승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관람객에게 실제 UAM을 탑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UAM 미니어처를 활용한 드론 물품 배송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군, 고흥천 침수예방 위한 종합정비에 나선다

안전한 고흥 만들기 위해 총 사업비 459억원 투입

고흥군은 고흥천 일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흉양홀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용역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용역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한국종합기술의 용역 추진 현황과 실시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침수피해 예방에 대한 심

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사업은 고흥읍 시가지지를 관통해 흐르는 고흥천의 하폭이 협소하고 고흥시장 주변 저지대 내수배제 불량으로 태풍,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흥천 하도 준설(2.25km) ▲교량 재가설(3개소) ▲가동보 설치(2개소) ▲게이트펌프 설치(1개소) ▲급경사지 2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행안부 공모사업

으로 45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항구적인 침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3월 행안부로부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용역 중으로, 건설기술심의·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오는 10월 공사에 착공한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내실있는 재해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생활권 정비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 위해 미꾸라지 방류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해룡천, 오천저류지 등에 모기의 천적인 미꾸라지 130kg을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 시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미꾸라지 방류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여름철 해충인 모기유충과 깔따구를 잡아먹는 미꾸라지는 친환경 해충 방제에 이용되고 있으며, 하천이나 호수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수중 산소를 공급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미꾸라지는 하루에 모기 유충 1,000마리 이상을 포식하고,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어 친환경 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경희 순천시 질병관리 과장은 “이번 미꾸라지 방류를 통해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감염병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미꾸라지 방류와 함께 해충 유인퇴치기 가동, 유용미생물 투여, 친환경 약제 연무소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방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